

네가 누구냐

성경 요한복음 1:19-28

신 67 쉼대 대화

<p>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p> <p>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하루 되세요.</p>	<p>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p> <p>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p>
<p>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p> <p>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p>	<p>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p> <p>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p>

찬양

1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은혜의 찬양 479장)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뵙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견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2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

- 1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 2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 3 놀라운 이 소식 알려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 4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후렴] 어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말씀 읽기 요한복음 1:19-28

-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랴 하느냐
-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 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러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본문 배경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기 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7절).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행한 증언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A.D.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사 40:3)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독자적인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례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회당과 성전에서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기름부음 받은 자는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26절).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후 오시는 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27절). 이는 당시 노예가 하도록 기대되었던 일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네가 누구냐'란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23절)

답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며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여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23절).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27절)

답 자신은 주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생각될 만큼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제사장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는 헤롯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주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27절). 당시 주인의 신발 끈을 푸는 일은 주로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노예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납작 엎드려야 할까요? 겸손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행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말씀 적용

1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로서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지 생각해 보고 나눠 보세요.

2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Who)인지 알아야, 앞으로 무엇(What)을 할지가 정해 집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며,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4-1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장 3절

작곡 조미진

♩ = 70

외 치 는 자 의 소 리 여 이 르 되 너 희 는 광 야 에 서

여 호 와 의 길 을 예 비 하 라 사 막 에 서 우 리 하 나 님 의

대 로 를 평 탄 하 게 하 라 대 로 를 평 탄 하 게 하 라

이 사 야 사 십 장 삼 절 아 멘 이 사 야 사 십 장 삼 절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말과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